

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설명자료	제 공 일	2019년 10월 15일
	소관부서	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농식품부 ASF 종합상황반
	담당자	박찬용 팀장/심은수 사무관 (044-201-6527/7243) 김상경 반장/정재환 서기관 (044-201-2511/2515)

제목 :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부터 상황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전파 가능한 잠재요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
[매일경제신문 2019.10.15.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별 행동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북한의 ASF 발생 확인부터 접경지역을 통한 유입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
 - 접경지역 울타리 설치,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고 포획틀·트랩 설치로 예찰활동도 강화하였음
 - 특히, 전국적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하였고, 돼지농장에서 발생 후 발생지역은 제한, 그 외 지역 강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 중
 -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초로 확인된 뒤에는 야생멧돼지 예찰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음
- 다양한 요인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곤충, 야생조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역학조사 위원으로 위촉, 전파요인 분석 중
- 2019.10.15일 매일경제신문 <4주간 헛다리 짚다 골든타임 놓친 돼지열병 방역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2019.10.15일 매일경제신문 <4주간 헛다리 짚다 골든타임 놓친 돼지열병 방역> 보도

- 정부가 접경지역 내 총기 포획을 허용한다는 긴급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에 불과하며 멧돼지 감염보다는 불법 축산물을 통한 전파를 막는데 집중하면서 조기 차단 기회를 놓쳤고, 감염 멧돼지 사체에 접촉한 다른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한 것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내용

-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지침과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- 금년 5월 북한 내 ASF 발생을 확인한 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
 -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, 농가 방목사육 금지,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,
 -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음
 - 특히, 지난 5월 북한 ASF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포획을 강화* 하였으나, 9.16일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 이후 양돈농가 발생 지역 등에서는 멧돼지의 이동 등을 최소화하고,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

* 5월 접경지역,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지역 총기 포획 허용

※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, 접경지역 2.8배 증가
(전국 월 4,042마리 → 7,753마리, 접경지역 월 145마리 → 400마리)

- 아울러 10.2일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야생멧돼지 예찰과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음

- 환경부는 예찰인력을 30명 수준에서 9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 예찰지역을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·군에서 접경지 14개 시·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
- 또한 국방부에서도 DMZ, 민통선 내 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를 위해 집중 수색·정찰을 실시 중이며, 접경지역과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해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
- 정부는 멧돼지 예찰, 농장단위 방역 관리 강화 외에 방역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실시하고 있음
 -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불법 축사를 일제 점검해 미등록 농가 등을 적발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였고
 - 한탄강 등 접경지역 하천수·토양, 발생농장의 지하수와 주변 하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여부도 점검함
 - 아울러, 다양한 요인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곤충, 멧돼지, 야생조류, 사료,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역학조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파 가능한 잠재요인을 분석하고 있음